



지상과 디지털 방송의 '오늘과 내일' 한국 DTV코리아 이정옥 사무총장

지상과 방송은 물과 공기처럼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는 공공재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케이블과 위성 방송을 통해 지상과 방송을 유료로 보는 것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회 현상에 반기를 들고, 지상과 방송의 제 모습을 되찾자는 움직임이 한국 DTV코리아를 통해 시작되고 있다. 전국 지상과 방송사들이 연합해 만든 한국 DTV코리아는 작년까지 지상과 전환 홍보 사업을 마친 후 올해부터 지상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곳이다. 지상과 디지털 방송의 혜택을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시청 안테나 시설을 무료로 설치하는 등 한국 지상과 디지털 방송의 푸른빛 미래를 그리는 한국 DTV코리아의 이정옥 사무총장을 만났다.

취재 박천국 기자 | 사진 양우영 기자 | 장소협찬 콘래드 서울 호텔(02-6137-7777) | 의상협찬 에트로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코리아'를 꿈꾸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수신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다수의 국민들이 케이블과 위성방송, IP TV 등을 통해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옥 사무총장은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오늘을 점검하고 내일을 계획하는 과정을 통해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직접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결국 지상파의 주인은 국민이어야 하고 자본이나 정치적 논리에 의해 공공재 성격이 약화되는 것은 지상파 방송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이재만 우선 'DTV코리아'는 무슨 뜻이며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이정옥 DTV는 디지털 TV의 약자입니다. 전체 한글명은 '한국 지상파 디지털 방송 추진 협회'입니다. 영국에서도 디지털 방송 전환을 위해 디지털 UK라는 기구가 있지요. 2012년까지는 주로 디지털 전환의 홍보를 맡았고 현재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이란 지상에서 송신탑을 통해 전파를 보내는 방송으로 공중파 방송이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용어인데 케이블로 방송을 서비스하는 케이블 방송이나 위성으로 서비스하는 위성 방송과 달리 공중에서 전파로 수신하게 되어 있는 KBS, MBC, SBS, EBS 등의 방송입니다. 매달 시청료를 내는 케이블, 위성 같은 유료 방송과 달리 무료로 시청할 수 있지요. 물론 모든 TV 보유자들에게 징수되고 있는 전파 사용료인 수신료는 유료 방송을 보는 시청자를 포함해 모든 국민이 기본으로 내고 있지요. 유료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은 기본 수신료 외에 추가로 유료방송을 위한 시청료를 더 내고 있는 것이지요.

이재만 지상파 방송이 디지털 전환을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궁금한데요.

이정옥 아날로그는 1개 채널에 1개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등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용량이 제한적이고 화질과 소리의 품질도 많이 떨어지는 반면, 디지털방송은 영상, 음성, 데이터 등의 정보를 디지털로 압축하여 전송하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선 화질이 놀랍게 선명합니다. HD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음질도 CD를 틀어 놓은 듯 생생함을 자랑하죠. 주파수도 고밀도로 압축하여 한 채널에 여러 개의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이를 테면 'KBS1 + KBS1-1 + KBS1-2' 등 이렇게 채널을 더 늘릴 수도 있고요. 지금 뉴스를 보는데 스포츠를 보고 싶을 때 동시에 수신할 수 있는 가변 채널도 가능하지요. 2012년 12월 31일 정부에서 지상파 방송은 의무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상파를 직접

보는 시청자들은 모두 디지털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재만 하지만 시청자들은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옥 방송이라는 매체에 대해 어렵고 좀 복잡하고 기술을 요하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더욱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지상파 방송을 직접 시청한다는 의미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전에는 각 가정에서 안테나를 통해 지상파 방송을 직접 시청했는데 요즘에는 케이블이나 위성 등 유료 방송을 통해서 지상파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지요. 그 경우 지상파 방송을 직접 보는 게 아니고 케이블 등 유료 방송을 통해 지상파 방송의 콘텐츠를 접하는 것이지요. 게다가 유료 방송을 보기 위한 시청료를 추가로 내야 하고요. 선명한 화질과 음질의 지상파 디지털 방송은 안테나를 통해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게 되면 순간 '와!' 하는 탄성이 나올 정도로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지요. 안테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옥상에 공시청 안테나 하나만 달면 됩니다.

이재만 안테나를 설치하는 방법이 까다로운 편은 아닌가요?

이정옥 디지털 전환 이후로는 안테나 설치도 간단해졌습니다. 실외 안테나는 베란다에 달면 되고 실내 안테나는 창문 앞에 놓아두기만 해도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직접 수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 이후로 난시청 지역이 대폭 줄어들어 수신율이 상당히 개선되었어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난시청 지역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요. 특히 DTV코리아에서는 다세대주택이나 연립 등에 거주하시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안테나와 관련 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만 디지털 안테나 설치하는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이정옥 신청 방법도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19세대 이하 전용면적 85㎡(약 25.7평) 이하로 구성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4세대 이상의 다가구주택 거주자들의 동의 하에 인터넷 홈페이지(www.dtvkorea.org)로 접속하여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팩스(02-3219-6375)나 콜센터 상담원(1644-1077)에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면 유료 방송을 볼 때처럼 따로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니 생활비를 절약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국적으로 9만7천여 단지 가운데 현재까지 약 5%가량 되는 4천400단지 가까이 설치한 상황입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이곳에 부임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 지상파 직접 수신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홍보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주군청, 인천 남구청, 노

원구청, 그리고 서울에서는 영등포, 관악구, 중랑구 등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고 부천시, 가평군을 비롯한 경기도 일대의 시장님, 군수님, 구청장님들을 계속 만날 예정입니다.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무료로 직접 보고 싶어 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기회를 준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각 단체장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이재만 마침 9월 3일은 방송의 날인데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정옥 네. 올해가 50번째 방송의 날이라 감회가 깊군요. 방송협회 사무총장을 지낸 2010년부터 작년까지 방송의 날을 세 번 치렀는데, 올해는 DTVC코리아 사무총장으로서는 방송의 날을 맞게 되었네요. 방송의 날은 일본 강점기 때 받은 'JO'라는 호출부호를 없애고, 국제무선통신회의에서 한국이 호출부호 'HI'를 배당받은 것을 기념하여 시작되었지요. 방송의 날은 우리나라에 지상파 방송만 있을 때 시작되었고 현재 방송협회도 지상파 방송들의 연합체이죠. 지상파 방송은 우선 시청자에게 보편 서비스를 한다는 정신과 원칙을 갖고 건강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만행'으로서의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을 선호하는 시청자들은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지상파 방송에 점수를 높이 주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방송협회의 한 조사에서 케이블 위성 등 유료 방송에서 지상파 방송이 나오지 않는다면 유료 방송을 끊겠다는 시청자들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결국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유익성이 시청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이재만 라디오 방송이나 강의 등 여러 활동을 해오셨는데, 그중에서 어떤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이정옥 라디오 방송을 진행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물론 마이크와 익숙해진 뒤에 진행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죠. 특히 2009년에 <함께하는 세계 이정옥입니다>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한국말을 하는 외국 사람을 매일 출연시켜야 했는데, 섭외를 직접 하면서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다문화 가정이 증가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한류의 힘을 새삼 실감했어요. 새벽 6시 방송이어서 섭외가 힘들긴 했지만 아주 신나게 일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 글을 쓴다거나 방송, 강의 등 말하는 일을 할 때 가장 많은 엔도르핀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남성일색’ 기자 사회에서 ‘여풍당당’을 외치다

과거 국제 뉴스를 다루는 방송사 보도국의 국제부조차 여기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했다. 당시 방송 뉴스에서 여기자는 해외 가십거리나 화젯거리 등 연성 뉴스 리포트만 말아야 했을 만큼 활동 영역이 제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정옥 사무총장은 특파원 시절, 이 같은 부당한 대우에 굴하지 않고 남성도 쉽게 할 수 없는 국제 분쟁 지역을 직접 취재한 경험도 있다. 일찍이 파리 유학생살을 통해 내면화한 코스모폴리탄적인 사고방식과 다양한 취재 경험을 통한 현장 경험이 이 사무총장에게는 가장 소중한 자산 중 하나다.

이재만 지금은 각 언론사 기자에 여성의 비율이 높아졌지만 과거만 해도 ‘여기자’는 드물던 시대였죠. 기자 생활하시면서 힘들고 난처했던 에피소드가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정옥 1978년부터 TBC에 입사한 뒤 방송 통폐합으로 1980년 KBS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지금이야 여기자가 많고 ‘여자가 못한다는 말’은 무색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1980년대 초반 해도 여기자는 국제부에 저 혼자였을 정도로 드물었죠. 여기자에게는 국제 분쟁 등 세계적으로 초미의 관심을 받는 뉴스보다 해외 토픽이나 가십 등 연성 뉴스를 보도하도록 했어요. 교토통신을 통해 동해상에 간첩

이 나타났다는 의신이 보도돼 제가 리포트를 해야 했는데, '여자가 어떻게 간첩 리포트를 하느냐'며 남자 후배에게 그 일을 맡긴 거예요. 부장님한테 찾아가서 '리포트를 하게 해 달라'고 말씀 드렸지만 결국은 더 말을 못하고 돌아서야 했죠. 그 당시 기억을 시작으로 쓴 책이 바로 <여자 특과원 국경을 넘다>예요.

이재만 그 책을 보면 방송기자로 활약하셨던 많은 에피소드들이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소개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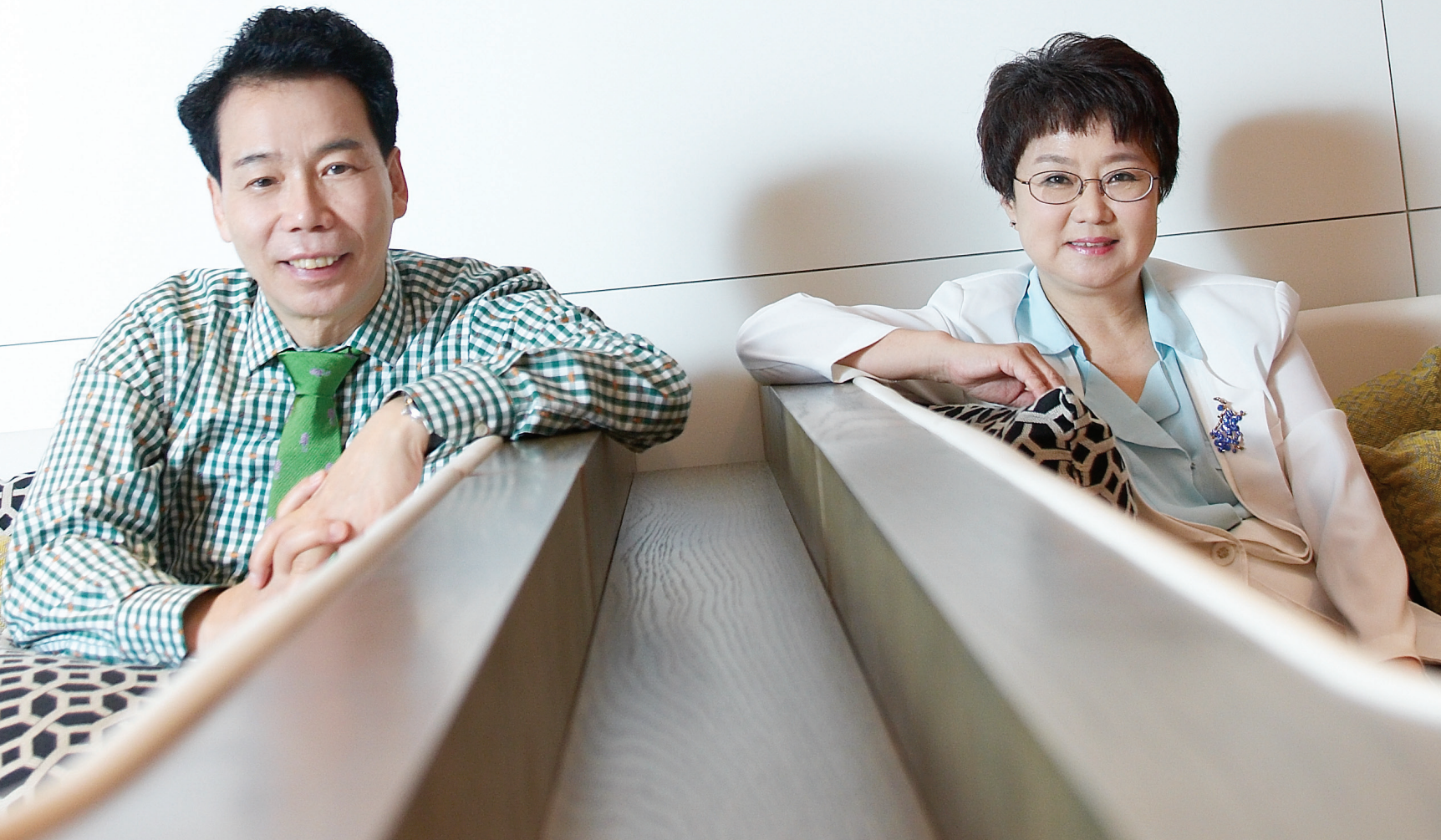
이정옥 1993년 방송 기자로는 처음으로 차도르를 쓰고 한 달 동안이란을 취재한 것이 가장 인상에 남습니다. 물론 코소보, 이라크, 예멘, 터키 등의 전쟁터나 납치사건, 지진 등을 취재한 경험도 제 삶의 일기장에 잘 새겨져 있어요. 사실 전쟁이 나면 일반인들은 피난을 가는데, 기자는 전쟁이 나는 곳으로 가야 하죠. 코소보전이 발발했을 때 저항하는 알바니아 사람들에게 세르비아가 인종 학살을 저질렀죠. 그래서 나토가 세르비아를 포격한 것이죠. 본사로부터 산 채로 알바니아인들을 묻은 인종 학살 무덤을 취재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그곳을 어렵게 찾아갔어요. 사실 그 전에 독일 기자가 취재하다가 외곽 지역에서 총격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그 이야기를 카메라 기자와 어시스턴트에게는 말하지 않았죠. 그러면 안 갔을지

도 모를 일이나가요. 그런 면에서 저는 군대를 직접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감이 떨어져 위험성을 잘 몰랐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여기자들이 하나에 몰입하면 그것이 위험한지를 고려하지 않고 무모하리만큼 돌진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이재만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인 프랑스에서 짧지 않은 특과원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 경험들로 남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정옥 기자학교에 가기 위해 1986년에 프랑스 파리의 문화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어요. 불어권 국가의 기자들이 연수를 받는 곳이었는데 한국인은 저 혼자뿐이었죠. 당시 파리는 인종전시장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있었어요. 물론 다른 인종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코스폴리탄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유로운 영혼을 추구한다'는 말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자유로운 사고로 이국적인 문화를 탐구하고 외국인들과 교류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 강한 편이죠.

이재만 방송 기사를 하시다가 방송협회 사무총장을 거쳐서 글로벌 전략 센터장을 맡게 되셨는데 방송협회 사무총장 시절에는 서울



드라마 어워즈라는 국제상을 주관하기도 하셨지요?

이정옥 네. 기자가 현장 취재 다닌 것 외에 드라마에 관해 시청자 수준 이상의 시각을 갖기 어렵지요. 말씀하신대로 뜻하지 않게 서울 드라마 어워즈 사무총장을 맡게 되면서 드라마 한류를 실감하게 되었어요. 서울 드라마 어워즈는 드라마라는 단일 장르로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제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올해로 8회째를 맞았어요. 한국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전 세계 60개국의 출판작들이 쇄도했죠. 드라마를 통한 교류가 가장 자연스럽게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이란 취재 당시 경험한 적이 있어요. 1993년 한 달 동안 다큐멘터리 취재를 위해 이란에 갔을 때 검은 차도르를 쓴 여성들이 제게 가까이 와서 불을 만지려 하며 ‘오싱, 오싱!’하고 미소를 지었지요. 당시에는 어리둥절했는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죠. 당시 일본 드라마 ‘오싱’이 이란에서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에는 제가 일본인으로 보였나 봐요. 때문에 이란 여성들이 제게 친근감을 표현한 것이었죠. 그때 드라마를 통한 교류가 그 어떤 것보다도 자연스럽게 깊숙하게 타 문화에 스며들 수 있는 매개체임을 알게 되었죠. 그 후 16년 만에 드라마 국제상을 주관하게 되었고 글로벌 센터장으로 방송 한류를 홍보하고 진작시키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상과 디지털 방송의 내일은 ‘맑음’

이정옥 사무총장은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 지상과 디지털 방송의 미래를 꿈꾼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발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공공성과 공익성이 한층 강화된 지상과 디지털 방송의 본질을 되찾고, 이를 토대로 드라마 등 한국 문화 콘텐츠가 결합된 한국 방송 문화의 세계화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 사무총장은 ‘원하면 할 수 있다’는 생활신조를 가슴 속 깊이 새기며, 탁상공론이 아닌 발로 뛰는 방송 행정가를 지향한다.

이재만 어린 시절 기자였던 아버지에게 ‘왜 소설가가 되지 않았느냐’며 투정을 부리셨다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아버지를 따라 기자가 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정옥 아버님은 신문 기자셨어요. 어린 시절에는 문학을 좋아해서 소설가를 동경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했던 거죠. 아버님은 4·19 민주화운동 때 김주열 열사의 죽음을 특종 보도하신 분이예요. 당시 군부 측에서 ‘평생 먹고 살게 해줄 테니 사진과 바 꾸자는 제안을 했는데 일언지하에 거절하셨어요. 그만큼 전설적인 기자라는 것을 조금 커서 알게 됐어요. 또 박정희 대통령 시절 기사를 구속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언론윤리법을 반대하기 위해 결

성된 한국기자협회 초대와 2대 회장을 역임하셨어요.

이재만 그런 강직하신 아버님 밑에서 성장하셨는데, 어떤 생활신조를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이정옥 어렸을 때 일기장마다 써놓은 문구가 있어요. ‘원하는 것,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활신조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30년 넘게 방송과 관련된 일을 해오면서 느낀 것은 ‘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저는 방송 현장이나 문화 교류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될 줄 알았는데 방송 행정가로서 활동하게 되었으니까요.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재만 방송계 대선배로서 미래의 방송인들이 갖춰야 할 조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정옥 프로듀서, 아나운서, 기자 등 방송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든 사고는 열려 있어야 해요.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항상 넓게 생각하려고 조언하고 싶어요.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생각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죠. 자신이 다소 진보적인 성향이더라도 보수 진영의 시각에서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팩트’를 분명히 해야 해요. 사실 관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내용을 기사화하는 것은 기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요즘 방송인들이 쉽게 범하는 오류에서 벗어나 미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의 생각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방적 사고를 지녀야 합니다.

이재만 마지막으로 DTV 사무총장으로서의 각오와 포부, 그리고 개인적으로 품고 계신 꿈과 비전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정옥 사실 디지털 전환 이후에 지상과 방송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공공재인 디지털 지상과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눈앞에 놓인 목표죠.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긴 호흡으로 쓸 수 있는 글도 써보고 싶고, 한류 등 문화 교류와 관련된 사업 분야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정년퇴임 이후에는 좀 더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 오지나 중세 느낌이 물씬 나는 유럽의 마을 찾아가 여행도 하고 싶어요. Q

이재만 변호사 (법무법인 청파 대표)
 서울중앙지방법원 조기조정위원, 경찰청 법률고문, 대한체육회 법률고문,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주병진·송일국·주지훈·권영찬 등 스타 사건 담당 변호사, KBS 여성공감 '이재만 변호사의 드라마법정', SBS 라디오로펌' 등 다수 방송 프로그램 출연. 이재만 변호사는 친절하고 명쾌하며 알기 쉬운 법률 해설가로 알려져 있다.

